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 국제해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연료 전환 가속화 등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진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탄소부담금, 비용적 혜택 부여 등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토록 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기술적요소(Technical elements)와 경제적요소(Economic elements)가 결합된 조치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수)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임병준 (044-200-5834)

□ 회의 개요

- (기간/장소) '23. 7. 3(월) ~ 7. 7(금) (5일간) / 대면 회의(런던)
- (참석) 150여개 회원국 및 42개 UN·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 (주요 논의사항)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30·'40년 중간 목표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규제(중기조치) 도입 등

□ 주요 결과

가. 2050-2030 감축 목표(Level of Ambition)

- 2050년(경)까지 (By or around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2050년 경, 또는 근접한 시기(By or around, I.e.. close to, 2050)*에 순 배출량 제로(Net-Zero) 달성
 - * 단, 국가별 다른 환경을 고려
- 2030년까지 저·무탄소 연료·기술 5%~10% 사용
 - 2030년까지 국제해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의 최소 5%를 저·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고 10%까지 사용하기 위해 노력

나. 중간 점검 지표(indicative checkpoint)

- ※ 의무적 감축 목표가 아닌, '50년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점검 차원의 지표
-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0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40년까지 70%(80%까지 노력)까지 감축

다. 중기 조치(Mid-term measure)

- 목표 기반의 연료유 표준제(Goal based Fuel Standard*)와 배출된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Maritime GHG emission pricing mechanism)가 결합된 결합조치(Basket measure) 도입 합의
- * 연료유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제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 해운산업·국가별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영향평가 착수, 감축률·감축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 논의 후 '27년부터 시행 예정

참고2

중기 규제조치 도입 이행 일정

□ 중기 규제조치 개발 경과

- 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장기적인 감축 조치 (규제) 개발 계획을 승인('21.6, MEPC 76) 하고 개발 논의에 착수

< 중장기조치 작업계획 >

- (1단계) '21봄~'22년 봄까지 회원국들의 중장기조치 제안을 목록화해 식별
- (2단계) '22봄~'23년 봄까지 식별된 제안 중 후보조치를 식별(초기전략 개정과 연계)
- (3단계) 선별된 조치에 대한 영향평가, 협약이행체계의 구축 또는 채택, 이행일정 수립

- 개발계획에 따라, MEPC 80('23.7)에 연료유 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가 결합된 조치를 후보조치로 선정 하였으며, 영향평가 및 이행 방안 논의(개발계획 3단계) 착수

□ 향후 중기조치 개발 계획

시기	종합영향평가*	중기조치 개발
MEPC 80('23. 여름)	종합영향평가 착수	중기조치 개발 착수
MEPC 81('24. 봄)	중간보고서 제출	중기 결합조치 형태 확정
MEPC 82('24. 가을)	최종보고서 제출	
MEPC 83('25. 봄)		조치 승인
특별 MEPC ('25. 가을)		조치 채택
MEPC 84('26, 봄)		
MEPC 85('26, 가을)		
조치채택 16개월 이후('27년)		조치 발효

* 종합영향평가(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 도입될 감축조치가 각 국가별 경제, 해운-물류, 수출입 시장, 식량 안보 등 광범위한 범위에 미치게 될 영향성을 평가

참고3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영국 런던) 사진



참고4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MEPC 80) 사진



참고5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MEPC 80) 사진



일시 | 2023. 7. 12(수) 13:30~16:40

장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를

2023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



| 설명회 일정 |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35 개회사

13:35~13:50 단체 사진촬영

세션 1. 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주요 결과

- 13:50~14:40 - 선박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정 결과
-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논의 사항
- 선박평형수관리 협약의 주요 결정 사항
- MARPOL 협약 개정 및 기타 사항

14:40~15:00 휴식

세션 2. 해양환경 국제해사 주요 동향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 15:00~16:05 - 우리나라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
-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바이오 선박유
- EU 및 미국 해사분야 온실가스 규제 동향
- 국적선사 CII 및 EEXI 규제이행 지원 사업
-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및 주요내용

16:05~16:10 장내정리

16:10~16:35 종합 질의응답

16:35~16:40 폐회사

※ 참석문의 : (재)한국해사협력센터 해양환경팀(070-4923-4533)



사전등록 바로가기

주최 해양수산부

주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MC 한국해사협력센터
Korea Maritime Cooperation Center

지원 KR 한국선급

KRISO 선별인증서비스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KM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A 한국해양수산개발원